

도심 중심업무지구 내 민간 지역주체 중심의 활성화를 위한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기반조성 협약서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의 공동화 방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Town Management)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공조를 통한 체계적인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이하 “더함”이라 한다.), (주)어반트랜스포머(이하 “UT”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민간 지역주체 중심의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문화하여 본 사업의 추진기반 조성 등 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타운매니지먼트”는 민간 지역주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활동으로, 지역내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공간 등 지역에 재투자하여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내용]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와 중구, 더함, UT는 다음과 같이 각 당사자의 역할을 정하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서울시는 중구와 더함이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비용을 지원한다.
2. 중구는 명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구상 마련과 공공공간의 활용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시 지역 내 공공공간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3. 더함은 지역 내 기업, 직장인 등 수요조사를 통해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역주체 발굴 및 상호 협력 하에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타운매니지먼트 기반마련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4. UT는 지역 내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의 활용 방안 및 공간구상을 마련한다.
5. 이 외에 위 당사자는 명동 지역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4조【합의 이행】 위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동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위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타운매니지먼트 거버넌스(TMO) 구성을 위한 협약 시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 협약 체결 이후 어느 한 당사자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사항】 본 업무협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 당사자는 명동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박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양동



(주)어반트랜스포머 대표 김은

